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신용카드사들, 침체 대비해 리스크 관리
- WSJ: 트럼프, “파월 의장 해고할 계획 없어”

[미국 금융]

- WSJ: 미 다우존스 약 600 포인트 상승

[미 관세 여파]

- Bloomberg: 트럼프, 향후 무역 협상에서 중국 관세 대폭 축소 시사
- WSJ: 중국도 관세 협상 용의...위협하는 협상은 '거부'
- WSJ: 미 관세 조치에 비즈니스 활동은 유럽 하락, 일본과 인도는 상승

[주택]

- YahooFinance: 3월 미 신규 주택 판매는 상승...공급 여전히 확대
- Bloomberg: 미 모기지율 다시 상승... 2월 중순 이후 최고치 기록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YahooFinance: 미 기업들, 관세로 인한 가격 급등 예상에 동의
- NYT: 애플과 메타, EU 디지털시장법 첫 제재 대상
- CNBC: 일론 머스크, 다음 달부터 DOGE 업무 축소 예정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Credit-Card Companies Brace for a Downturn

신용카드사들, 침체 대비해 리스크 관리

- 신용카드 회사들이 미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손실을 막기 위해 준비 충당금을 늘리고 있다.
- 고객들의 연체율이 늘고 있는 가운데, 다행히 팬데믹 이전 수준과는 비슷한 상황이다.
- 일부 크레딧 회사들은 융자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부유층 고객을 우선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메리카 익스프레스의 경우 고소득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여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WSJ 기사

WSJ: Trump Says He Has 'No Intention' of Firing Fed Chair Powell**트럼프, “파월 의장 해고할 계획 없어”**

- 트럼프는 연준의 파월 의장을 해고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파월 의장이 미 금리 인하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주도록 희망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 해당 발언 후 증시와 달러는 상승했다.
- 이 같은 입장 변화는 그의 참모들이 파월 의장을 해고할 경우 금융 시장의 침체를 불러일으키고 해고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미국 금융]**WSJ: Trump Tariff News: U.S. Considers Slashing China Levies; Dow****Jumps About 600 Points****미 다우존스 약 600 포인트 상승**

- 투자자들이 오늘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매도 미국’ 분위기가 일단 중단되고 있다.
- 증시가 이를 연속 상승 회복 중인데 트럼프가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2가지 이슈, 대 중국 관세와 연준 파월 의장에 대한 입장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 오늘 목요일 미 증시를 비롯해 아시아 유럽 증시가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국채가 도 상승하고 있다.
- 나스닥은 2.5% 이상, S&P 500은 2%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금값은 3.86% 하락해 온스당 3천2백87불에 거래되고 있다.

WSJ 기사

[미 관세 여파]**Bloomberg: Trump Floats 'Substantial' China Tariffs Cuts in Trade Deal****트럼프, 향후 무역 협상에서 중국 관세 대폭 축소 시사**

- 트럼프는 향후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행된다면 매우 관대한(Very nice) 입장 을 보일 것이며 두 나라가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경우 관세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구체적으로는 “관세가 상당히 낮아질 것이지만 제로는 아닐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말했다.
- 그는 “우리는 관대하게 대할 것이며 그들도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되니 어떤 결과가 있을지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WSJ: China Signals Openness to U.S. Trade Talks—but Not Under Duress 중국도 관세 협상 용의...위협하는 협상은 '거부'

-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가 중국 관세에 대해 완화된 입장을 언급한 이후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계속적인 미국의 위협 가운데서는 협상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수요일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관세에 관련하여 분명한 입장이다. 싸우지 않겠다. 그러나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싸우게 되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대화하게 된다면 문은 열어 놓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WSJ: Trump Tariffs Show Mixed Impact on Big Economies 미 관세 조치에 비즈니스 활동은 유럽 하락, 일본과 인도는 상승

- 미국의 관세 조치에 유럽연합의 민간 활동을 보여주는 합성구매관리자 지수는 4월에 50.1로 떨어졌다. 영국도 낮은 수출 물량 주문으로 감소 현상을 보였다.
- 일본이나 인도의 비즈니스 활동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다.
- 일부 유럽 기업들은 관세 조치 전에 미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을 늘렸으나 글로벌 교역의 혼란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WSJ 기사

[주택]

YahooFinance: US new home sales jump in March; supply still rising 3월 미 신규 주택 판매는 상승...공급 여전히 확대

- 3월 신규 단독주택 판매가 예상외로 상승했는데 모기지가 하락했을 때 구매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2월 말에는 30년 모기지율이 6.76%였으나 3월에 6.65%로 낮아졌다.
- 그런데 글로벌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주택 시장 회복에도 도전을 주고 있다.
- 어제 수요일 연방 센서스국 자료에 따르면 3월 신규 주택 판매 숫자가 7.4% 늘어난 계절 조정치 연율로 72만4천 채로 나타났다. 작년 9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2월에는 67만4천 채로 하향 조정됐다.

YahooFinance 기사

Bloomberg: US Mortgage Rates Rise Again, Reach Highest Since Mid-February 미 모기지율 다시 상승... 2월 중순 이후 최고치 기록

- 미 모기지율이 지난주 다시 상승하며 주택 구매나 리파이낸싱 수요를 더욱 위축 시켰다. 모기지은행협회(MBA)의 오늘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금리는 4월 18일 마감 주간 기준 6.90%로 상승, 2주 연속 오르며 2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 모기지율은 미 국채 수익률과 연동된다. 트럼프의 연준 의장 해임 위협 및 관세 정책으로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미 국채 매력도 감소, 이로 인해 모기지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 MBA의 주택 구매 신청 지수는 2주 연속 하락해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리파이낸싱 지수는 20% 급락하며 올해 최대 낙폭을 나타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YahooFinance: Americans are expecting a tariff-fueled price surge. Corporate America says they're right 미 기업들, 관세로 인한 가격 급등 예상에 동의

- 버라이즌과 3M은 실적 발표를 통해 관세 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이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버라이즌 CEO는 "휴대폰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를 회사가 감당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결국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기업은 관세 비용을 일부 흡수하거나 전가할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비용 급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적용은 중소기업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은 대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와 중소기업의 생존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노동자 전반에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미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전체 미국 고용의 약 42%를 차지한다.

YahooFinance 기사

NYT: Apple and Meta Are First to Be Hit by E.U. Digital Competition Law 애플과 메타, EU 디지털시장법 첫 제재 대상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위반으로 애플에 5억 유로, 메타에 2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DMA는 거대 기술 기업이 '디지털 관문(gatekeeper)'으로서 사용자와 기업에 일방적인 조건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으로, 이번 제재는 해당 법률 시행 이후 첫 사례다.
- 애플은 앱 개발자가 사용자에게 판매 및 할인 정보 등을 직접 전달하지 못하게 한 행위, 메타는 이용자가 광고 비활성화를 원할 경우 유료 구독을 요구한 행위가 각각 문제로 지적됐다. 사용자 선택권 제한 및 개인정보 보호 원칙 위반이 쟁점이 됐다.
- 애플과 메타는 각각 유럽연합의 결정에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메타는 이번 조치를 "사실상 미국 기업에 부과된 관세"라고 비판했다. 유럽 관료들은 이번 판결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 한편, 미 백악관은 지난 2월에 유럽 연합이 디지털 시장법이나 서비스법을 통해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할 경우 보복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NYT 기사

CNBC: Tesla CEO Musk says time he spends on DOGE will drop

'significantly' next month

일론 머스크, 다음 달부터 DOGE 업무 축소 예정

-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화요일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5월부터 정부효율부(DOGE)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테슬라 주가는 40% 넘게 하락했다.
- 테슬라는 1분기 자동차 매출이 전년 대비 20% 감소, 순이익은 71% 급락했다고 발표했다. 중국발 경쟁, 차량 노후화, 유럽·미국 내 시위와 같은 외부 요인 외에도,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머스크가 창설한 DOGE는 SEC, FAA, NHTSA 등 그의 회사들을 감독하는 기관을 포함해 국세청, 교육부, 국토안보부 등 여러 부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했다. 이에 일부 상원의원은 DOGE가 연방 학자금 대출 데이터에 접근했을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CNBC 기사

[보고서]

뉴욕증시, 미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에 반등...다우 2.7%↑
美재무 "中과의 교착상황 완화 예상"...협상진전 낙관론 부상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될 것이란 낙관론이 부상하면서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16.57포인트(2.66%) 오른 39,186.9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29.56포인트(2.51%) 오른 5,287.7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429.52포인트(2.71%) 오른 16,300.42에 각각 마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